

‘채상병 특검’ 정국 돌입... 민주 ‘총공세’·국힘 ‘딜레마’

민주 “5월 본회의의 처리” 압박...이태원 특별법 등 재추진 예고 국힘 “받아들여야” “재판 결과 보고 재논의” 내부서 의견분분

총선 이후 ‘채상병 사망 특검’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본회의의 처리 방침을 굳힌 상태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전과 달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오는 5월 본회의의 처리 방침을 강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특검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로 대외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며,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서 출국금지된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집어넣어 하나로 합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이 전 대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

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는지에 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도 이지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조건 민주당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반론도 나온다.

부산 사하에서 당선돼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을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는 용산이, 그리고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반면, 강원 강릉에서 5선에 성공한 권성동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총리 하마평에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나 우려”

“국정 기조 전환 계기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을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응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당 난립에 총선 비례 379만표 ‘사표’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379만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몹수 비례 정당’이 난립하면서 여러 정당이 표가 분산된 데다 무효표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개 정당은 득표를 2% 미만을 기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실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이 14명, 조국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2명의 비례 당선인을 배출했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674표로 집계됐다. 정당 투표 사표는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후 확연히 늘었다.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의 사표는 154만표(7.1%)였다. 이후 18대엔 162만표(9.3%), 19대엔 201만표(9.2%), 20대엔 233만표(9.5%)의 사표가 나왔다. 그런데 준연동형제가 처음 적용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표로 ‘폭증’했다. 가장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0%에 수렴한 신한반도당이다. 이당은 1580표를 얻었다.

이낙연·김종민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1.70%,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0.43%를 얻어 군소정당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2%의 벽은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낙연·김종민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1.70%,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0.43%를 얻어 군소정당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2%의 벽은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낙연·김종민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1.70%,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0.43%를 얻어 군소정당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2%의 벽은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낙연·김종민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1.70%,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0.43%를 얻어 군소정당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2%의 벽은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순천 발전 여야 드림팀 구성”

민주 김문수·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 간담회...발전 방향 논의

순천 발전을 위한 여야 드림팀이 구성됐다.

22대 총선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자는 15일 “여야 드림팀이 구성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당선자, 국민의미래 인요한 당선자, 순천 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천하람·김문수 당선자는 이날 순천의 한 제과점에서 2시간 가량 간담회를 열고 순천이 직면한 현안과 지역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천 당선자는 “순천 선거구가 올바로 분구됐다면 순천은 2명의 국회의원을 가졌어야 했다”며 “원래 순천이 마땅히 가져야 했던 두 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김문수 당선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도덕적 기반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한다”며 “순천의대와 같이 윤석열 정권 내에 결론을 내고 확정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후속 늦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천 당선자는 “순천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국민의미래 인요한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됐기 때문에 당을 초월해서 순천 발전의 문체에 있어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은 지역구의 김문수 당선자이고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2024 고소득 추천 묘목

포포나무	계리스 빅걸	선물리워×센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센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일찌기과 반사필림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업나무	민업나무	가시 없는 민업나무 가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가시없는 업나무	
두릅	민두릅	가시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참두릅	

사과,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모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번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갑을농원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소,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대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